

독립영화 업계, 3D 영화 출시 릴레이

2011. 5. 23

Overview

블록버스터 3D 영화가 박스오피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가운데, 3D 영화 제작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독립영화 업계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부터 공포 장르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바탕으로 제작한 3D 영화가 잇따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Briefing

'잊혀진 꿈의 동굴', '피나' 등 3D 독립영화 관객 호응도 높아

- 전 세계 독립영화 업계에서는 3D 영화 제작 비용 감소 추세를 반영하듯 화려하고 역동적인 장면을 보다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판타지, 액션 장르를 넘어서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3D 영화 제작 열풍이 불고 있음
 - 독일의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Werner Herzog)의 '잊혀진 꿈의 동굴(Cave of Forgotten Dreams)'은 1994년 발견 이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프랑스 남부의 쇼베(Chauvet) 동굴 내부를 촬영한 다큐멘터리로 실감나는 3D 영상을 통해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음
 - 또 다른 독일 영화감독 빔 벤더스(Wim Wenders)는 지난 2월 개최된 베를린 영화제(Berlin Film Festival)를 통해 현대 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일대기를 다룬 3D 영화 '피나(Pina)'를 선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음
 - 빔 벤더스는 "25년 전 피나 바우쉬의 춤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을 3D 기술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며 '봄의 제전', '카페뮐러' 등 피나 바우쉬의 대표작을 3D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냈다고 밝혔음
 - 이밖에도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는 일본 감독 다카시 미이케(Takashi Miike)가 연출한 3D 영화 '한 생명(Hara-kiri: Death of Samurai)'이 경쟁부문에 진출했음
 - 3D 공포영화 '줄리아 X 3D(Julia X 3D)'를 연출한 P. J. 페티트(P. J. Pettiette) 감독은 "공포영화는 3D 영상 기술의 발전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장르 중 하나로, 관객들은 한층 실감나는 공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Figure 1 잊혀진 꿈의 동굴과 피나의 포스터



자료: 각 사 홈페이지

3D 독립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와의 3D 상영관 확보전 피해야

- 해저탐험 어드벤처 영화 '생텀(Sanctum)'의 제작자 벤 브라우닝(Ben Browning)은 "3D 상영관 확보전이 치열한 영화 업계의 현황을 감안할 때, 3D 독립영화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영화관을 점령하는 시기를 피해 개봉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생텀'은 5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영화 흥행 성수기 동안 대작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개봉시기를 2월로 잡았으며, 이 같은 전략이 흥행에 주효했음
-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이 기술 지원 및 편집에 참여한 '생텀'은 아바타(Avatar)의 핵심 촬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퓨전 3D 카메라 시스템(PACE Fusion Camera System)¹⁾을 사용해 3D 기술의 심도와 원근감을 극대화시키며 총 제작비 3,000만 달러로 흥행에 성공한 이례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1) 페이스 퓨전 3D 카메라 시스템은 기존 카메라 방식과는 달리 카메라 두 대에 최고 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장착, 두 대의 카메라가 마치 사람의 양쪽 눈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었으며, 촬영 대상이 먼 거리에 있으면 렌즈들은 그에 따라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촬영 대상이 가까이 있으면 두 대의 카메라 렌즈들도 가까이 붙게 되는 기법을 통해 촬영한 이미지를 조합, 실감나는 3D 영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임

Analysis

독립영화 업계의 3D 영화 제작은 3D 입체영상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D 영화가 SF, 액션과 같은 블록버스터에 특화된 장르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공연물과 같이 다양한 장르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제작비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와 함께 블록버스터 대작에 밀려 배급사와 상영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D 독립영화 배급사는 제한된 상영관이라도 지속적인 상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3D 독립영화 사례는 3D 시장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맞서 경쟁하기 힘든 국내 영화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이돌 공연영상물의 3D 제작, 다큐멘터리의 극장 개봉에도 적극적인 국내 업계가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Source

1. Variety, 'Indies embrace cheaper 3D', 2011. 5. 14
<http://www.variety.com/article/VR1118036964?refcatid=3764&printerfriendly=true>